

#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가정환경의 질과 남아의 스트레스의 관계

## The Relationships among the Mother's Parenting Behavior, Home Environment, and Stress of Male Child

정현정\* · 문혁준  
가톨릭대학교 아동학 전공

Jung, Hyun Jung\* · Moon, Hyuk Jun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Catholic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a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home environment in relation to the stress of a male child. The subjects were 200 mothers of 4-6 years old children in early childhood program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the Mother's Parenting Behavior Scale (Park Seong Yeon & Lee Suk, 1990), Home Scale (Jang Yeong Ae, 1981), and Children's Usual Stress Scale (Yeom Hyeon Gyeong, 1998).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a) stress was shown to be higher if the mother's parenting behavior was authoritarian and over-protective, (b) children of lower economic background showed a higher stress level than middle and upper economic background subjects, and (c) the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authoritarian and over-protective parenting behavior and quality of the family background were meaningful variables for children's stress.

**Keywords** : mother's parenting behavior, home environment, child stress

### I. 서론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성인 뿐 아니라 유아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유아의 스트레스란 유아가 일상생활을 할 때 경험하는 사소하지만 부담스러운 사건들로 유아로 하여금 좌절감이나 분노심, 공포심, 우울감, 소외감, 불안감, 압박감, 거부감, 긴장감 등을 유발시키는 상태를 말한다(염현정, 1998). 스트레스가 점점 유아에게 확산되고 있는데 유아들은 아직 발달단계이고, 유아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서 대처능력이 부족하므로 도움을 필요로 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유아의 스트레스는 부적응과 문제행동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무엇보다 유아는 성인에 비해 스트레스의 원인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행동 및 발달 장애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하였다(홍강의, 1998; Elkind, 1991; O'Brien, 1998). 특히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정서적 병리와 관련이 많으며 유아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까지 약화시켜 유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이정은, 1992; Marion, 1995)

\* Corresponding author: Jung, Hyun Jung  
Tel: 02-595-0716, 010-8964-7107  
E-mail: estel0513@naver.com

스트레스는 단순히 환경적인 자극이나 개인의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환경적 요인에서 유발되는 유아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심리적, 가정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내에서 여러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반영하는 다양한 변인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양한 변인 중 유아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스트레스와 깊은 관계가 있다. Banez와 Compas(1990)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자녀의 전반적 행동 특성 및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유아들에게 부모의 스트레스적인 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 등은 유아의 스트레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를 입증하듯, 고영미(1996)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 스트레스 행동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으며, 부모의 격리가 지나칠 때 불안과 긴장이 고조되고 특히 부모나 가족들이 같이 있으면서도 그들의 애정과 관심을 가지지 못할 때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동일한 맥락에서 어머니가 합리적 지도, 애정, 일관성 있는 규제 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낮고,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적 행동을 많이 나타낼수록 스트레스는 높게 나타났으며(이영환, 백지은, 1997), 수용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이 거부적이거나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하였다(정혜경, 1992; 최성윤, 1991). 또한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적, 자율적으로 지각할 때 자녀들은 스트레스를 적게 느낀다고 하였으며(신동수, 1997), 거부적-통제적인 부모의 자녀는 애정적-자율적 부모의 자녀보다 높은 스트레스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고영미, 1995). 김지홍(2004)도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스트레스 가운데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할 때 아동의 스트레스는 합리적 지도, 애정적 적극적 참여에서 통계적으로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어머니는 유아가 접하는 최초의 경험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에 영향을 준다.

가정환경은 유아가 출생 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일차적 환경으로 유아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인간의 초기경험을 이루는 중요한 생활환경이다(손영숙, 1985). 배기영(1983)은 인간발달 단계 중 결정적 시기가 많은 어린 시절 대부분을 가정에서 보낸다는 점을 지적하여 가정환경의 교육적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명복(1983)은 성격

의 기반이 형성되는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가정환경은 다른 어떤 환경들 즉, 학교 환경이나 사회 환경에 비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는 환경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최성윤(1991)은 유아들은 가정환경변인에 의해 유아의 스트레스 지각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강두원(1989)은 아동이 지각한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은 가정환경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Banez와 Compas(1990)는 사회적 심리환경 요인 중 부모의 스트레스유발 행동과 부정적 태도 등 가정의 갈등적 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유치원 유아가 초등학교 아동에 비해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이 높다고 하였으며(이정은, 1992), 가정 분위기가 협동적이고 응집력이 강한 가정에서 자란 유아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결과는 가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연구이다(이정미, 1996). 박현정(1992) 또한 가정환경은 유아의 정서적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개인관련 스트레스 영역에서 가정환경(HOME)의 상·중·하 순으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황미섭, 2000).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가정환경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중요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유아 내적인 요인인 성별과 관련지어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보면, 남아가 여아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으며 성인의 반응을 더 의식한다는 Hoing(1986)의 연구와 남아가 여아보다 유의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교사에게 도움을 더 요청한다는 Rutter(1979)의 연구가 있다. 국내연구에서도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영미, 1996; 김나립, 1996; 안라리, 1995; 양혜영, 정승원, 1999; 엄선희, 1999; 이정은, 1992; 홍희란, 2002). 이와 같이 기존에 연구가 있으나 단순히 성별 비교일 뿐 남아만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연구가 행해지지 않았다.

유아 스트레스 관련 부모와 기관 변인에서는 대졸 어머니의 유아가 다소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나타낸(고영미, 1996) 반면 한미현(1998)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민필(1993)은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아동에게 과잉기대와 더불어 편애를 하여 아동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어머니의 연령은 전반적인 부모 행동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인데(Belsky, 1984) Cleaver(1994)는 어머니의 연령이 너무 어릴 경우 자녀와의 관계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의

에도 김석현(2006)과 박성혜(2003)는 기관형태에 따라 유아의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종합해 보면, 이제까지의 스트레스 관련 연구들은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가정환경의 질을 동시에 살펴본 연구가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남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가정환경의 질과의 관계를 설명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궁극적으로 학부모, 부모교육관계자 그리고 유아교육 관련 종사자에게 남아의 스트레스를 완화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정보와 방안을 제공해 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행동, 가정환경의 질, 남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기관형태 및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가정환경의 질에 따라 남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차이가 있는가? 넷째, 남아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5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남아 200명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남아의 연령은 4세가 19명(9.7%), 5세가 82명(41.0%), 6세가 99명(49.3%)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기관유형은 어린이집이 110개(55.0%), 유치원이 90개(45.0%)였다. 기관이용시간은 6시간미만이 77명(38.5%), 6시간 이상이 123명(61.5%)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남아 어머니의 인구학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이하가 90명(45.0%), 대졸 이상이 110명(55.0%)이었고 어머니의 연령은 35세 이하 95명(47.5%), 36세 이상 105명(52.5%)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을 살펴보면, 무직·가정주부가 122명(61.0%)으로 가장 많았고, 일일노동자·가내부업이 1명(0.5%)로 가장 적었다 그 밖의 직업은 서비스직 종사자가 6명(3.0%), 자영업·일반판매자가 8명(4.0%), 일반사무직·보안업무 13명(6.5%), 회사원·공무원이 32명(16.0%), 전문직 16명(8.0%), 기타 2명(1.0%)이었다. 가정의 월 소득을 살펴보면, 150만원 이하가 10명(5.0%), 151-250만원 이하가 36명(18.0%),

251-350만원 이하가 45명(22.5%), 351-450만원 이하가 38명(19.0%), 451만원 이상이 71명(35.5%)으로 가정 월 소득은 351만원 이상이 과반수 정도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 2. 측정 도구

### 1) 남아의 스트레스

남아의 스트레스를 검사하기 위하여 염현경(1998)이 우리나라 3-6세 유아에게 맞도록 제작한 한국형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유아의 스트레스 검사 내용은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불안·좌절감 경험, 자존감 상함 등의 3가지 스트레스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엄마, 아빠에게 야단 맞을 때’, ‘집에 혼자 있는 것’, ‘엄마나 아빠가 친구나 형제보다 내가 더 못한다고 말할 때’ 등이 있다. 반응양식은 ‘받지 않음’의 0점에서 ‘많이 받음’의 3점까지의 반응으로 하는데 4점 척도이고 유아스트레스 점수의 범위는 3가지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각각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0-15점, 불안·좌절감 경험 0-36점, 자존감 상함 0-18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68, .75, .82이었다.

###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박성연·이숙(1990)이 개발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를 임미리(1997) 뒤에없음 가 재구성하여 사용한 검사도구로 측정하였다. 이는 합리적 지도(8문항), 애정·적극적 참여(8문항), 권위·과보호(9문항)로 사용하였다. 구성요인은 ‘합리적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적극적인 참여’로 총 27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그 요인의 양육행동을 많이 보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78, .74, .76 이었다.

### 3) 가정환경 자극검사

가정환경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장영애(1981)가 수정, 보완한 취학 전 아동용 HOME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어머니용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Syracuse 대학에서 제작된 것으로 장영애가 우리나라 문화 환경에

맞게 번안하고 이은혜와 장영애(1982)에 의해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 졌다.

이 도구는 9가지 영역, 환경의 조직성 및 안정성, 발달을 위한 자극, 언어적 환경,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정도 및 허용성, 독립성 육성, 정서적 분위기, 경험의 다양성, 환경의 물리적 측면, 놀이자료로 이루어져 있고 총 88문항이다. 각 문항은 '예', '아니오' 로 측정되고 '예'인 경우를 1점으로 채점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HOME총점을 산출하여 전체 집단의 상위 30%이내인 경우 가정환경 「상」 집단, 하위 30%이하인 경우 가정환경 「하」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중간 40%에 해당하는 집단을 가정환경 「중」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신뢰도는 .81로 나타났다.

###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모든 변인을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기관형태와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양육행동과 가정환경의 질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의 차이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F*검증, *Scheffé* 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남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 의하면, 양육행동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합리적 지도'의 평균 3.82점( $SD=.48$ ), '애정·적극적

<표 1> 측정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N=200)

변인	통계치	M	SD
양육행동	합리적지도	3.82	.48
	애정·적극적 참여	3.76	.47
	권위·과보호	2.88	.55
가정환경의 질		.74	.94
남아 스트레스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3.32	.67
	불안·좌절감 경험	3.01	.46
	자존감 상함	3.08	.61
	총점	3.07	.44

참여'의 평균 3.76점( $SD=.47$ ), '권위·과보호'의 평균 2.88점( $SD=.55$ )으로 응답 가능한 점수범위(1~5점)의 중간점수인 3점보다 '합리적 지도'와 '애정·적극적 참여'는 높게, '권위·과보호'는 낮게 나타났다.

가정환경의 질은 0.74점( $SD=.94$ )으로 응답 가능한 점수범위(0~1점)의 중간점수인 0.5점보다 높게 나타나 가정환경의 질은 중간수준 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남아의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남아의 스트레스 전체 평균은 3.07점( $SD=.44$ )으로 응답 가능한 점수범위(0~3점)의 중간점수인 3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의 평균 3.32( $SD=.67$ ), '불안·좌절감 경험'의 평균 3.01점( $SD=.46$ ), '자존감 상함'의 평균 3.08점( $SD=.61$ )으로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이 타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1. 어머니의 양육행동, 가정환경의 질, 남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기관형태 및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기관형태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 가정환경의 질, 남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차이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우선, 양육행동의 차이를 기관형태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를 하위항목별로 살펴보면 '합리적지도'( $t=-2.98, p<.01$ )와 '애정·적극적 참여'( $t=-3.76,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유치원의 어머니들이 어린이집 어머니들에 비해 '합리적 지도'와 '애정, 적극적 참여'를 더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권위·과보호'( $t=2.19, p<.05$ )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어린이집 어머니들이 유치원 어머니들보다 더 권위적이고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하고 있었다. 기관형태에 따른 가정환경질의 차이를 살펴보면, 가정환경의 질( $t=-3.99, p<.001$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어린이집( $M=.71, SD=.09$ )보다 유치원( $M=.77, SD=.08$ )이 가정환경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관형태에 따른 스트레스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남아와 유치원 남아의 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t=.30, p>.05$ ). 기관형태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를 하위항목별로 살펴보면,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t=.30, p>.05$ )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불안·좌절감 경험'( $t=1.31, p>.05$ )과 '자존감 상함'( $t=1.10, p>.05$ )에서도 통계적으

<표 2> 기관형태에 따른 양육행동, 가정환경의 질, 남아스트레스의 차이 (N=200)

변인		어린이집		유치원		t
		M	SD	M	SD	
양육 행동	합리적지도	3.73	.52	3.93	.41	-2.98**
	애정·적극적 참여	3.65	.51	3.90	.37	-3.76***
	권위·과보호	2.95	.51	2.78	.59	2.19*
가정환경의 질		.71	.09	.77	.08	-3.99***
남아 스트레스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3.34	.66	3.31	.69	.30
	불안·좌절감 경험	3.05	.40	2.97	.52	1.31
	자존감 상함	3.04	.58	3.13	.64	-1.10
	전체	3.08	.39	3.06	.49	.30

\* $p<.05$ , \*\* $p<.01$ , \*\*\* $p<.001$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 가정환경의 질, 남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를 하위항목별로 살펴보면, ‘합리적지도’( $t=-.28, p>.05$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애정, 적극적인 참여’( $t=-.08, p>.05$ )의 차이와 ‘권위·과보호’( $t=.98, p>.05$ )의 차이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학력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가정환경의 질의 차이를 살펴보면, 가정환경의 질( $t=2.17, p<.05$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전문대졸 이하일 때( $M=.72, SD=.10$ )에 비해 대졸 이상일 때( $M=.75, SD=.09$ )가 가정환경의 질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학력에

<표 3>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양육행동, 가정환경의 질, 남아스트레스 차이 (N=200)

변인		전문대졸 이하		대졸 이상		t
		M	SD	M	SD	
양육 행동	합리적지도	3.81	.45	3.83	.51	-.28
	애정·적극적 참여	3.76	.42	3.76	.51	-.08
	권위·과보호	2.92	.49	2.84	.60	.98
가정환경의 질		.72	.10	.75	.09	-2.17*
남아 스트레스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3.28	.67	3.35	.67	-.83
	불안·좌절감 경험	2.93	.48	3.08	.44	-2.20*
	자존감 상함	2.99	.60	3.16	.61	-1.95
	전체	2.99	.42	3.14	.44	-2.41*

\* $p<.05$

다른 남아의 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t=-2.41, p<.05$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는데 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졸이하일 때( $M=2.99, SD=.42$ )보다 대졸이상일 때( $M=3.13, SD=.44$ )가 유아의 스트레스가 높았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를 하위항목별로 살펴보면, ‘비난·공격적 상황에 처함’( $t=-.83, p>.05$ )과 ‘자존감 상함’( $t=-1.95, p>.05$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불안·좌절감 경험’( $t=-2.20, p<.05$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남아가 ‘불안·좌절감 경험’ 영역의 스트레스가 더 높았다.

## 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의 관계는 어떠한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스트레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은 권위·과보호와는 정적상관( $r=.25, p<.001$ )을 보였으며, 불안·좌절감 경험은 합리적 지도( $r=-.21, p<.01$ )와 애정·적극적 참여( $r=-.27, p<.001$ )는 부적상관을 보였고, 권위·과보호( $r=.34, p<.001$ )와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r=.43, p<.001$ )과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자존감 상함은 권위·과보호( $r=.25, p<.001$ )에서만 정적상관을 보였다.

스트레스 전체는 합리적지도( $r=-.18, p<.05$ )와 애정·적극적 참여( $r=-.22, p<.01$ )는 부적상관을 보였고 권위·과보호( $r=.36, p<.001$ )와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합리적이고 애정·적극적 참여적일수록 남아 스트레스는 낮았고, 양육행동이 권위적이고 과보호적일수록 남아의 스트레스는 높아졌다는 것이다.

<표 4>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일상적 스트레스간의 상관 (N=200)

남아스트레스	양육행동		
	합리적지도	애정·적극적 참여	권위·과보호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03	-.02	.25***
불안·좌절감 경험	-.21**	-.27***	.34***
자존감 상함	-.11	-.13	.25**
스트레스(전체)	-.18*	-.22**	.36***

\* $p<.05$ , \*\* $p<.01$ , \*\*\* $p<.001$

### 3. 가정환경의 질에 따라 남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차이가 있는가?

가정환경의 질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고, 사후분석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 $F=3.60, p<.05$ ), 불안·좌절감 경험( $F=10.44, p<.001$ ), 스트레스(전체)( $F=9.18, p<.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비난 공격적 상황에 접함의 스트레스는 상집단( $M=3.20, SD=.78$ )보다는 하집단( $M=3.50, SD=.59$ )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에 대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의 스트레스는 상집단과 하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불안·좌절감에서는 가정환경의 질 상집단( $M=2.88, SD=.48$ )과 중집단( $M=2.95, SD=.46$ )보다는 하집단( $M=3.22, SD=.38$ )이 높은 점수를 보여 가정환경의 질이 하인 집단은 불안·좌절감의 경험이 심함을 볼 수 있다. 사후검증 결과, 중집단과 상집단은 차이가 없었으나 두 집단과 하집단은 차이가 나타났다.

자존감 상함에 대한 스트레스는 하집단( $M=3.23, SD=.52$ ), 중집단( $M=3.01, SD=.66$ ), 상집단( $M=3.01, SD=.61$ )은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스트레스(전체)에서는 가정환경의 질의 상집단( $M=2.96, SD=.44$ )과 중집단( $M=3.00, SD=.44$ )보다는 하집단( $M=3.25, SD=.37$ )이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사후검증 결과 가정환경의 질의 중집단과 상집단은 차이가

<표 5> 가정환경의 질에 따른 남아의 스트레스 차이 ( $N=200$ )

변인		가정 환경의 질	M	SD	F	Scheffé	
남아의 스트레스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하	3.50	.59	3.60*	a	
		중	3.27	.62			
		상	3.20	.78			c
	불안·좌절감 경험	하	3.22	.38	10.44***	a	
		중	2.95	.46			b
		상	2.88	.48			c
	자존감 상함	하	3.23	.52	3.06		
		중	3.01	.66			
		상	3.01	.61			
	전체	하	3.25	.37	9.18***	a	
		중	3.00	.44			b
		상	2.96	.44			c

\* $p<.05$ , \*\*\* $p<.001$

a, b, c : 유의하게 다른 집단의 표시

없었으나 두 집단과 하집단은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정환경의 질 상집단과 중집단 보다는 하집단이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결과로 가정환경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는 것이다.

### 4. 남아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남아의 스트레스(전체)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모델 1에 투입한 변인 중 어머니의 학력( $\beta=.16, p<.05$ )이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4%로 나타났다. 모델 2에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후에는 15%가 늘어났으며 어머니의 학력( $\beta=.17, p<.05$ ), 권위·과보호( $\beta=.34, p<.001$ )가 유의한 변인으로 전체 설명력은 19%였다. 모델 3에 가정환경의 질을 투입한 후에는 어머니의 학력( $\beta=.19, p<.01$ ), 권위·과보호( $\beta=.31, p<.001$ ), 가정환경의 질( $\beta=.07, p<.05$ )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2%가 늘어나 설명력은 21%였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행동이 권위·과보호적 일수록, 가정환경의 질이 낮을수록 유아의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남아의 스트레스(전체)에 대한 변인들의 회귀분석 ( $N=200$ )

독립변인	스트레스		Model 1		Model 2		Model 3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어머니의 연령	.08	.10	.09	.10	.10	.12		
어머니 학력	.14	.16*	.15	.17*	.16	.20**		
기관 유형 <sup>1)</sup>	-.04	-.08	.02	.03	.02	.05		
기관이용시간	-.02	-.03	.02	.03	.02	.02		
양육 행동	합리적 지도				-.07	-.07		
	애정·적극				-.05	-.05		
	권위·과보호				.27	.34***		
가정환경의 질							-.08	-.07*
상수			2.8		2.3		2.7	
R <sup>2</sup>			.04		.19		.21	
F			2.1		6.40***		6.20***	

\* $p<.05$ , \*\* $p<.01$ , \*\*\* $p<.001$

<sup>1)</sup>유치원=1, 어린이집=2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첫째, 유아기 남아의 어머니의 양육행동, 가정환경의 질,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의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았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일

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셋째, 가정환경의 질에 따른 남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차이를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남아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한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양육행동 중 합리적 지도와 애정 적극적 참여는 높게, 권위, 과보호는 보통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으며 가정환경의 질은 중간보다 높게 나타나 가정환경의 질은 중간수준 이상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남아의 스트레스 전체는 중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불안·좌절감 경험, 자존감 상함 순으로 남아는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했을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염현경(1998)의 비난·공격적 상황에서의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불안·좌절감 경험, 자존감 상함 순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 따라서 남아들은 또래나 형제 관계에서 놀림을 받거나 신체적 공격을 받을 때 부담을 갖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 가정환경의 질, 남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기관형태,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유치원의 어머니들이 어린이집의 어머니에 비해 합리적 지도와 애정·적극적 참여의 양육행동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위·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어머니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어머니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치원의 어머니들이 어린이집의 어머니들보다 더 애정적이며 어린이집 어머니들이 더 거부적이었다는 김석현(2006)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로 어머니의 권위적 양육태도를 줄일 수 방안의 모색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관형태에 따른 가정환경의 질에서는 어린이집의 남아보다 유치원의 남아의 가정환경의 질이 높게 나타났으나 기관형태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어린이집의 유아가 유치원 유아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박성혜(2003) 연구와는 불일치하였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는 최근 어린이집의 질적 측면이 나아졌기 때문이라 추측되어진다. 한편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를 하위항목별로 살펴보면, 합리적지도, 애정, 적극적 참여, 권위·과보호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보다 애정적이고 수용

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선행연구(한종혜, 1980; 곽용, 1985; 박미옥, 1993)와는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대중매체, 기관에서의 부모 교육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가정환경의 질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이하일 때에 비해 대졸이상일 때가 가정환경의 질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학력이 물리적 환경구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오금자, 1982; 임원명, 1974)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환경제공을 하며 가정환경자금 지출이 높다는 손영숙(1984)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이하일 때보다 대졸이상일 때가 스트레스가 높았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를 하위항목별로 살펴보면 비난·공격적 상황에 처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대졸 이상일 때 불안·좌절감 경험 영역의 스트레스가 높았다. 이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유아에 대한 요구가 많아 유아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을 것으로 사료되며 대졸 어머니의 유아가 다소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낸다고 한 고영미(1996)의 연구와는 일치하지만,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낮다는 한미현(1998)의 연구와는 불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학력이 높은 부모일 수록 자녀에 대한 기대감도 크므로 그만큼 더 유아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스트레스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과 자존감 상함에 대한 스트레스는 권위·과보호 할수록 높게 나타났고 불안·좌절감 경험에 대한 스트레스는 양육행동이 합리적지도와 애정·적극적 참여일수록 낮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전체는 양육행동 중 합리적지도와 애정·적극적 참여 일수록 적게 나타났고, 권위·과보호 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합리적이고 애정·적극적 참여적일 수록 남아 스트레스는 낮았고, 양육행동이 권위적이고 과보호 할수록 남아의 스트레스는 높았다. 어머니로부터 수용될 수 있는 행동과 수용될 수 없는 행동의 이유를 밝혀주고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는 합리적인 양육을 받은 자녀가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할 때 스트레스를 더 적게 받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자녀와 함께 놀이를 하며 자녀의 문제해결을 촉진시키는 행동과 자녀에게 신체적 애정을 비롯한 친밀성을 표현하는

양육행동을 한 자녀가 비난 공격적 상황에 접할 때 스트레스를 더 적게 받는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유아들에게 부모의 스트레스적 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은 스트레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한 Banez와 Compas (1990)의 주장이 본 결과를 지지해준다고 할 수 있다. 김지홍(2004)의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스트레스 중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할 때 아동스트레스는 합리적 지도, 애정적극에서 통계적으로 부적상관이 있다고 한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권위적일 때 유아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한 정혜경(1992)과 백지은(1997)의 연구와도 일치하며, 부모 자녀 관계가 애정적 일수록 유아의 스트레스 강도가 낮다고 한 최성윤(1992), 백지은(1997), 이정미(1991)의 연구와도 일관된 결과이다. 강차연(1999)도 어머니가 애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나고 어머니가 권위적일 수록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문제행동을 줄이고 보다 건강한 발달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따뜻하고 애정적인 태도를 촉진하고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부모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넷째,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은 상집단 보다는 하집단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불안·좌절감에서는 가정환경의 질 상집단과 중 집단보다는 하집단이 높은 점수를 보여 가정환경의 질이 하인 집단은 불안·좌절감의 경향이 심함을 볼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전체에서는 가정환경의 질 상집단과 중 집단보다는 하집단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정환경의 질이 낮은 하집단이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불안·좌절감 경험, 스트레스 전체에서 스트레스 정도가 가정환경의 질이 높은 상집단보다 높은 결과로, 가정환경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황미섭(2000)의 개인 관련 스트레스 영역에서 가정환경의 질 상·중·하 순으로 스트레스가 낮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배지연(1998)은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가족관련 요인이라고 했으며, Medeiros (1983)는 환경의 불리함과 욕구불만으로 누가적인 스트레스를 직면할 수 있다고 했고 강두원(1989)은 아동의 지각한 심리적 스트레스수준은 가정환경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가정환경에 따른 남아의 스트레스가 차이를 보이는 본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 준다. 또

한 아동의 물질적 욕구 충족을 못해주고 학습기회를 못주며 문화적 경험과 자극의 결핍은 욕구좌절에서 오는 여러 가지 반응과 함께 열등감을 가지며 성장발달장애와 이상이 나타난다고 밝힌 이찬교(1990)의 연구가 본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며,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가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동은 낮은 자아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Cooper(1981)의 지적과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더 나아가 가정의 조직이 안정적이고 융통적 일수록 아동이 심리적으로 온화하고 안정적이며(고승연, 1985), 가정에서 아동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정도가 높을수록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는다고 하였다(임윤혁, 1984). 따라서 보다 가정에서의 생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유아들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 보다 나은 가정환경의 제공을 해주도록 가정에서 노력하여 남아들이 스트레스를 가정으로 인해 받지 않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어머니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기관유형, 기관이용시간, 양육행동의 하위영역, 가정환경의 질이 유아의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남아의 스트레스 전체에 대해서는 양육행동 중 권위·과보호가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다음으로 어머니의 학력, 그다음으로 가정환경의 질이 영향을 미쳤다. 이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영향을 미친다는 고영미(1996)와 이해숙(1999)의 연구와 일치하며, O'Brien과 그의 동료들(1990)의 연구에서 가족관계가 유아스트레스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가정에서 아동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정도가 높을수록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는다는 임윤혁(1984)의 견해와 불리한 환경으로 인해 자아통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누가적으로 쌓여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 Medeiros(1983)들의 주장도 이러한 결과를 지지해준다. 그러므로 남아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가정환경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도록 부모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되어 진다.

마지막으로 남아 스트레스 전체가 권위·과보호적 양육행동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난 박은주(2001)의 연구와 부모의 태도가 유아스트레스에 요인이 된다고 한 Johson(1986)과 Thits(1983)뒤에없음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 즉, 부모가 과보호적이며 권위적일 때 아동에게 부적절한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결과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서 아동의 부적응 행동 및 스트레스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

을 추론할 수 있으며 남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서 부모의 권위·과보호적 양육행동이 유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설명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부적응을 유발하는 스트레스의 주요 유발원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으며 유아들을 위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변화를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종합해보면, 남아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변인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가정환경의 질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이며, 남아의 스트레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내와 수도권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일부 남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으며, 설문지법 이외에 후속연구는 관찰, 심층면접, 가정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남아스트레스와 가정환경을 좀 더 정확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남아의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가정환경의 질과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으며, 어떠한 경우에 남아가 일상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부모나 가족, 예비부모들이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나 사회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부모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머니들에게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 어머니의 양육행동, 가정환경, 유아스트레스

### 참 고 문 헌

강두원. (1989). 가정환경, 학업성취, 심리적 스트레스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강차연. (1999). 어머니의 애착유형과 결혼 갈등, 자녀 양육행동 및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고승연. (1985). 가족체계 상호작용 유형과 청소년의 성격차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문.  
 고영미. (1996).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가족변인과 성별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나림. (1996). 유아의 또래 간 인기도에 따른 스트레스 행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석현. (200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에 관한 조사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지홍. (2004).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광용. (1985).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미옥. (1993).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성연. (1989).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4), 151-165.  
 박성혜. (2003).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 변인 탐색. **아동학회지**, 24(4), 1-14.  
 박은주. (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아의 인기도 및 성별에 따른 유아스트레스 행동에 관한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현정. (1992). 가정환경과 유아교육기관의 질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배기영. (1983). 고등학생의 가정환경에 따른 적응문제 및 적응기제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배지연. (1998).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유형과 대처방식.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백지은. (1997).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스트레스 및 자기지각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4(1), 91-112.  
 손영숙. (1985). 영·유아의 양육책임자에 따른 가정환경자극의 영향. **아동학회지**, 6(2), 2-15.  
 신동수. (1997).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내외통제성과 스트레스간의 관계분석.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안라리. (1995). 유아교육기관의 질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 종일제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양혜영, 정승원. (1999). 양육환경과 기관의 질이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4), 141-158.

- 엄선희. (1998).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자녀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염현경. (1998). 유아의 이상적 스트레스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금자. (1982). 유아 놀이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 및 역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명복. (1983). 가정환경과 중학교 여학생의 성격특성과의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인 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환, 백지은. (1997).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스트레스 및 자기자각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4(1), 91-112.
- 이은혜, 장영애. (1982). 가정환경 자극검사(HOME)의 타당화 연구(초등학교 저학년용). **교육학연구**, 2(1), 49-63.
- 이정미. (1996). 국민학교 아동이 겪는 스트레스와 그 대처방법 유형.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은. (1992). 유치원과 국민학교 저학년 어린이의 일상적 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혜숙. (1999). 유아의 기질 및 배경변인과 스트레스 행동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미리. (1997). 취업모의 직업관련 특성, 탁아기관의 질 및 심리적 안정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윤혁. (1984). 환경, 학업성적, 정신건강과의 관계. **사대논집**, 11(1),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 임원명. (1974). 실태조사에 의한 장난감과 부모의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찬교. (1990). **교육심리학**.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장영애. (1986). 아동의 가정환경과 발달 특성간의 인과모형 분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혜경. (1992).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스트레스와 양육태도와와의 관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천민필. (1993). 국민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성윤. (1991). 아동기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미현. (1993).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미현. (1998). 가정환경 관련 변수에 따른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및 행동문제. **진리논단**, 2(1), 33-56.
- 한종혜. (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강의. (1998). 유능한 어린이로 키우기. 어린이의 스트레스와 부적응 행동 및 대처방안. 삼성복지재단 어린이개발센터 제6회 학술대회 자료집, 147-174.
- 홍희란. (2002).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미섭. (2000). 가정환경에 따른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의 차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nez, G. A., & Compus, B. E. (1990). Children's and parent's daily stressful events and psychological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6), 591-605.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2), 83-96.
- Cleaver, G. (1994). Mothers and their preschool childre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04(1), 35-51.
- Coopersmith, S. (1981). *The Antecedent of Self-esteem*.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C. 164-215.
- Elkind, D. (1988). **쫓기며 자라는 아이들**. 김용미 옮김. (2001). 서울: 학지사.
- Honing, A. S. (1986). Stress and Coping in Children. *Young Children*, 41(4), 50-63.
- Johnson, D. C. (1986). Maternal Child-rearing preschoolers and social problem-solving strategies among preschool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241-242.
- Marion, M. (1995). *Guidance of Young Children*. Englewood Cliffs, New Jersey: Merrill.
- Medeiros, D. C., Poter, B. J., & Welch I. D. (1983). *Children under stress*.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 O'Brien, S. J. (1998). Childhood stress: A Creeping phenomenon. *Childhood Education, Winter*, 75(1) 105-106.
- Rutter, M. (1979). Maternal deprivation, 1972-1978: New finding, new concepts, new approaches. *Child Development*, 50(2), 283-305.

접 수 일 : 2009. 08. 31.

수정완료일 : 2009. 11. 04.

게재확정일 : 2009. 11. 17.